

##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5-11

정윤돈 목사님

‘만유’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만유라고 한다. 주님이 우주 만물을 다 붙잡고 계신다.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다. 골1:15-17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부활체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는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 함께 섰다고 했다. 공동번역에는 ‘그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움직일 수 있고, 우주가 질서있게 돌아가며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주, 곧 코스모스는 질서를 말한다. 주님이 질서를 가지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것이다. NIV에는,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다른 번역에는 consist라는 표현을 썼다(KJV :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by him all things consist.). 구성되다,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 안에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다. 지금도 우주 전체, 시공간을 움직이고 계신다. 세로 안, 핵 안까지 계시며 움직이고 계신다. 주님이 만약 핵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다 폭발하게 된다. 질서가 깨지면 부패하거나 폭발하거나 무너져 버린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다. 공동번역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압니다.” 라고 했다. 하나님 안에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골1:17에 중요한 말이 또 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종교는 자신을 위해서 신을 이용한다. 복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 영원한 응답으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복음이 우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다. 이 진실이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결론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상관없다. 불신자도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하지 않나? 우리는 그런 어떤 것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 문제 온다고 불신앙하고 낙심하는 것은 너무 죄송한 일이 아니겠는가? 조금만 믿음 가졌는데도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시고 계신다. 우리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조금 해하지 마라. 초대교회는 250년 만에 세계를 복음화했다. 우리 다락방은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쫓아내려고 한다. (웃음) 오전에 생선 이야기 나왔지 않나. (웃음) 부흥이 아니고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데, 몇 명이나 남겠나. 노아처럼 혼자 남는 것 아닌가. (웃음) 정말 제자가 나오고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 나오면 250년 지나면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난 사람, 세상과 수준이 비슷한 사람, 믿음 없는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가득해지면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갈 것 같은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어도 우리 교회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 같은가?

그런 믿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란다.

### 서론

왜 우리에게 교제가 필요한가? 어떤 책이든 특징이 있다. 교제의 종류와 말씀운동의 key를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한다. 류목사님이 전도운동할 때, 가장 먼저 현장에 가서 손으로 써서 나눠주었던 메시지가 현장복음메시지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맞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모이는 사람이 다양한 계층이지만, 모든 메시지에 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선포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다. 아까 최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체험하고 충격받고 결론을 내게 되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증인이 된다. 무슨 교제를 쓰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된다. 여러분, 가서 성경공부 하라는 것이 아니다.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그때까지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라. 그때부터는 모든 교제가 쉬워진다. 안 그러면 다 어렵다. 복음편지를 공부해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 3과는 요점이 굉장히 많다. 두 시간 해도 다 못 한다. 그런데 내가 체험하고, 내 삶 속에 그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으면 간단하게 답을 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응답을 받으셔야 한다. 나는 현장에 갈 때 먼저 기도한다. 어떤 메시지가 그 현장에 맞을까 하고 고민한다. 그러면 가 보면 메시지가 나온다. 그 중에서, 주일 강단메시지가 거기에 맞을 때가 참 많다. 대학 현장에 가는데 느헤미야 메시지가 너무 맞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굉장한 응답을 받았는데, 52일 동안 집중했다. 리더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52일 집중을 해 보면 좋겠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었고, 역사를 읽을 수 있었으며, 지혜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를 준비하고 나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렸다가, 때가 왔을 때는 직접 나서서 나라와 민족을 개혁했다. 이런 메시지가 너무 현장에 맞는 것이다. 여러분, 주일에 성경 한 권 전체를 가지고 메시지를 할 때는,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응답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 응답받을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강단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 내가 응답을 받고 깨달아서 증인이 되면, 현장에 가고 싶어지게 될 것이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닌가. 그러다가 시간표가 되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소식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복음소식 영상을 올리기 전에는 유튜브에서 복음소식 검색을 하면 구원과 박옥수의 메시지가 주룩룩 났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것으로 가득차서, 박옥수 씨 메시지 찾으려면 한참 내려가야 한다. 못 찾는다. (웃음) 우리가 문화개혁을 한 것이다. 1:1 양육, 개인화 기도수첩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어떤 메시지를 듣더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요령을 가지셔야 한다. 배승찬 집사님은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매일 복음소식만 일심 전심 지속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윤성주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성경읽기도 할 것이다. 모든 책 다 버리고 성경만을 읽어가는데 자기가 달라졌다고, ‘윤성주가 달라졌어요’ 하시지 않았다. (웃음) 그런데 만나서 회의 해 보면 하나도 안 달라졌다. (웃음) 여전히 뭐 안 되면 확 올라와서 난리가 난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달라진 게 확실히 있다. 뭔가? 그렇게 난리가 나더라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확 가라앉아서 이해하고 순종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말씀 받아도 못 깨닫고 안 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 잘 읽는 팀이 우리 중직자 중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개인화 더 잘 하는 팀이 우리 속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전도캠프의 대가가 우리 중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산업인의 모델이 교회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모든 면에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한 가지만 잘 해도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살아날 것이다. 다락방 한 군데만 잘 해도 다른 모든 게 연결될 것이다. 찬양대 하나, 정시기도 하나만 잘 해도 된다.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하면 모든 것이 연결된다. 그래서 교재의 열쇠는 일심, 전심, 지속이다. 그러면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진짜 사명자를 만나게 될 때 이 교재는 대폭발을 일으키게 된다. 그때까지 양육하라. 스스로 말씀을 찾아 듣게 될 때까지 양육하라. 그래서 교재가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제자가 나타나면 아순처럼 3주 만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응답받게 될 것이다. 그 제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 1.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 (1) 요5:22 심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 (2) 마28:18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다.
- (3) 마9:6 죄를 사하는 권세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 (4) 요6:47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영생이다. 생각해 보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주 어디를 가고 싶다 하면 천사 불러서 심부름시켜서 날아다니고,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영원히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이 땅에서의 1초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의 차이가 나온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히 11:6).

### 2. 그는 어떤 분이시기에 이토록 중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 (1) 요5:17-18, 빌2:5-11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 (2) 딤후2:13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호와와의 증인에게 이 구절을 보여주어야 한다.
- (3) 요2:24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마음, 생각,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다. 주님 앞에서는 진실해져야 한다. 진실하고 정직하기만 해도 큰 응답을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것이다. “주님, 저는 못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기만 해도 된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신다.
- (4) 마8:26-27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 (5) 요11:43-45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다.

### 3.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증거가 무엇인가?

- (1) 요2:19-21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
- (2) 눅24: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했다.

### 4. 또한 그분은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이시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 (1) 마24:30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 (2) 행1:11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반개처럼 빛으로 오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다(눅17:24).
- (3) 마24:6-8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복음 전하면 된다. 시간을 정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누리면 된다.

### 5.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길은 무엇인가?

- (1) 갈2:20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것이다.
- (2) 히12:1-2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계속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찾아지고 답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말씀을 보고 계속 붙잡아야 한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 결론

그렇게 되어야 300지교회,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목회자들이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말하고 싶어져야 한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주님 앞에서 증거가 있으니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변화된다. 역사의 증거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누려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죄송할 정도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 (1)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가상지교회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연결되면 또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든든하게 3천 제자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나는 123층 롯데타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계속 기도한다. 저기에도 가상지교회를 세우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하나씩 가는 곳마다 기도할 것이 보인다. 그게 너무 재미있다.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NGO 세워 가면서 전도 문을 보게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상지교회다.
- (2) 예비지교회를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다. 성도들이 있는 곳, 말씀운동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곳을 교역자들이 다 찾아내서 들어가려고 한다. 그것이 예비지교회다.
- (3) 그러면서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지교회 세울 것을 보면서 들어가야 한다. 헌금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지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그리스도로 결론 났으면 우리가 복음운동, 말씀운동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 번 뿐인 인생이다.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며, 구체화시키도록 로드맵을 그리고 도표를 가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란다.